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5, 평가 및 적용

© 2024 David Bauer 및 Ted Hildebrandt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15, 평가 및 적용입니다.

실제로 해석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단락에서 추론, 특정 추론을 함께 모으는 것이 구절 해석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해석하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결론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지만, 파생적으로는 세상을 통해 계시하신 현실의 의미를 완전하고 심오하게 아는 능력이며, 현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행동으로 구현하여 온전함과 일치 of 삶을 경험하는 능력을 베드로는 완전이라고 부르고, 야고보는 완전이라고 부르며,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이신 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그 자체로 신이 주신 신의 선물이며, 일반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나 지상의 도움으로는 불가능하며 기독교 개종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신의 은사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공되며, 따라서 그 본질상 신성하고 초월적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는 신앙의 기도, 즉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청원 방식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그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깊은 확신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만을 주고자 하는 절대적인 욕구. 지혜는 현실을 알고 이 현실을 삶의 구체화, 즉 올바른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해력, 역량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내재된 시련과 유혹에 관련되지만, 또한 모든 인간 상황에 더 일반적으로 관련됩니다. 이 전체론적 일반 결론에 대한 추론의 다양한 특정 측면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과 해석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와 적용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낸 해석의 진리 중 어떤 측면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진리, 혹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와 적용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특정한 과정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해석에서, 실제로 우리 해석의 일반적인 결론인 그 단락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본문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가르침을 확인하고 이 가르침을 간략하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행한 단락과 아래에서 논의될 증거에 기초하여 이 구절의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가르침이 초월적인지, 즉 시대와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지 또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지 판단하십시오. 는 원래 상황에만 국한되어 현재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절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이 상황에 얽매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초월적일 수 있는 가르침으로부터 가정과 파생물 모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평가와 적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평가하자면, 평가는 실제로 어떤 가르침이나 해석 가르침의 어떤 측면이 상황에 얽매이고 어떤 것이 초월적인지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귀하의 해석에 따른 가르침이나 가르침 또는 가르침의 측면이 상황에 묶여 있는지 여부, 즉 그것이 전달된 원래 상황에 너무 묶여 있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또는 초월적인지, 즉 원래의 상황에 너무 묶여 있어서 채택하고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시간과 다른 곳에 합법적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를 포함한 장소.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성경 평가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해석된 구절의 진실, 적절성 또는 정당성을 적용하는 적절성 또는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평가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평가의 또 다른 측면은 실제로 적용의 힘과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용력의 측면에서 볼 때, 가르침이 초월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원래 상황에 너무 엄매이지 않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종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르침의 힘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행동을 위한 절대 요구 사항, 절대 요구 사항, 또는 권장되는 것, 어쩌면 강력히 권장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전술적 제안, 특정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 적용 가능성의 힘으로 제시됩니까? 적용 범위는?

즉, 평가는 이 구절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사람, 즉 교회 내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양보 정도의 문제도 있다. 즉, 이 구절의 가르침은 일종의 신적 양보와 관련된 진리를 제시하는가? 즉, 하나님의 이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일 것이지만, 이 구절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고나 행동의 수준이며, 하나님이 이상에 반대하는 것을 양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보가 허용된다는 암시와 함께 이상을 제시하는가?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적 평가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적용 가능성의 적절성이나 적법성, 적용 가능성, 적용 범위, 적용 가능성의 양보 정도 등의 측면에서 성경적 진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것으로 돌아가서, 적용 가능성의 양보 정도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신적 양보를 하는 구절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은 열왕기하 5장과 관련된 시리아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병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요단강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야훼의 숭배자가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그는 예배를 위해 리몬 신의 집으로 시리아 왕을 동행하고 아마도 돕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리몬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형 선고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리몬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허락된다면 선지자에게 양보를 간청하거나 요청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아만에게 양보를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언제나 옳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공식적인 필요 사항을 양보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7장의 경우 바울은 독신의 이상을 제시한다. 남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태로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양보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호르몬, 격렬한 호르몬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습니다.

거기에는 양보와 함께 제시된 이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독신 생활이 신성한 이상이지만 거기에는 양보가 명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평가의 기본 수준이 무엇인지, 즉 적용 가능성의 적절성 또는 적법성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초월의 연속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마태복음 22:34부터 40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34부터 40까지. 여러분은 이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의지하라.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가르침이라고 믿는 이유를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연속체의 다른 쪽 끝에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황에 따른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한 구절의 가르침, 한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더 근본적인 진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가르침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그 구절의 맥락과 폭넓은 성경적 관점에 따라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가르침이 그것이 다루어졌던 원래의 상황을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는 본질적으로 초월적이며, 따라서 원래 상황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크게 형성되거나 결정되는 것, 즉 상황에 따라 우발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초월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우발적인 것에 비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전유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특히 그 문맥의 구절과 폭넓은 성경적 관점에 따라 내려집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장부터 40장까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문맥은 실제로 이것이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허용하고 이것이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맥락이라는 측면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맥락은 이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용어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 22장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 뜻의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중적인 사랑의 명령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모데 전서 5:23과 관련하여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문맥이 상황에 따른 조건을 암시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섭취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은 우선 디모데의 특별한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즉각적인 맥락에 의해 암시됩니다. 그리고 물론, 더 넓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물을 금지한 곳은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 우연적인 종류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연속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아주 많은 구절, 아마도 대부분의 구절이 이 연속체의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얽매인 구절의 가르침의 특정 측면과 초월적인 가르침의 다른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성경적 평가의 과제이다. 물론, 원한다면 받아들이거나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일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6절을 예로 들어보자: 만일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 중 어느 성읍에서든지 그 거하는 곳에서 오거든 그가 원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지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인즉 그가 거기 서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모든 동료 레위인과 같이 그가 그의 기업을 팔아 얻은 것 외에 그들도 균등하게 먹을 것이니라

물론 지금 우리에게 레위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중앙신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거나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는 실제로 성경적 평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납적 접근 방식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의 직관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 같거나, 우리가 받아들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종류인 것 같다고 단순히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용 가능성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성의 양보의 힘, 범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때 증거, 특히 성경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성경적 증거에는 특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이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황적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어야 한다면 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나의 박사과정 교수 중 한 분이 Paul Achtemeier 이었는데, 한번은 그가 성경 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공 없이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펼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여러 면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두 제자는 부활절 이후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 받아들여지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물론 대답은 명백히 '아니요'입니다. 이는 분명히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의 더 넓은 맥락을 바탕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대위임령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제자를 삼는다는 해석을 보면 제자를 삼는 일의 일부이자 사실상 핵심이 되는 일이 메시아 되심, 곧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마태복음의 또 다른 예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의 양. 자, 그게 바로 받아들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종류인가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넓은 책의 맥락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28장 끝에 있는 복음의 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모든 이방인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확실히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의 절정인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제한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열두 제자들에게는 적합했지만, 부활의 이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1장, 18장부터 36장까지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신약성서의 가장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최근 몇 년간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6절까지에 관한 논쟁은 그 구절의 해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대규모로 보면 꽤 분명한 것 같지만, 특히 그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채택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 가끔 제기되는데, 이는 특히 적발된 매춘, 남성 적발된 매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성애 관계 자체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니라 이교도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즉각적인 맥락에 대한 증거 측면에서 즉각적인 맥락은 그것이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런 종류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바울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주장을 보면 바울은 창조와 창조의 순서에 따른 동성애 행위에 대한 그의 반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실제로 창조주에 대한 위반이나 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초월적인 가르침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예, 또 다른 유형의 증거인 우리가 한 일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맥락에서 증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의 증거는 성경적 간증, 광범위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 간증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해가 따르거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줄무늬에는 줄무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산상수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여 네 옷을 가져가려거든 겹옷도 가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억지로 1마일을 가라고 하면 그와 함께 2마일 등을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율법의 이 계명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명시된 조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용하지만, 대조적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적 간증,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계시의 진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성경적 간증의 한 형태인 출애굽기 21-24장의 가르침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적합하고 합법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른 가르침이나 상황에 따른 구절도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에 적용할 수 없거나 설교할 수 없거나 설교나 가르침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많은, 심지어 많은 구절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에는 개인 형성 측면에서나 교회 내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제외된 구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성향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구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관련된 구절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관련성, 적용 가능성은 결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합리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구절에서는 거의 항상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최종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말한 것의 이유, 즉 단순히 의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 뒤에 있는 이유, 또는 이 구절에서 전달된 내용의 의미, 신학적 함의를 추구한다면 거의 항상 답이 나옵니다. 합리적이고 함축적인 질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상황에 따른 구절이나 가르침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물론 서구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에 얽매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채택하거나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성경적 평가와 함께 상황 평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구절의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이 현대 상황 사이에 충분한 일치 또는 일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상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설교자나 교사들이 종종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내의 교사나 설교자가 주석도 잘하고, 해석도 잘하고, 심지어 성경적 평가도 잘 하겠지만, 그것을 현대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현대 상황을 오해하고, 현대 상황을 잘못 읽는 상황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오용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 군비 경쟁, 전쟁과 평화, 복제 등과 같은 복잡한 현대 상황에 성경적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복잡한 현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대 상황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에 성경적 가르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나는 자신의 연회 내에서 개체 교회의 갈등, 즉 목회자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한 감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교육감은 그 상황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잘못 읽었고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가르침을 그 상황에 잘못 적용했으며 그 잘못 적용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류의 평가가 적절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때로는 이를 전유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유가 더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적용에는 행동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유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서 행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특정한 결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인 광범위한 도덕적, 영적 형성과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전유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유에 관해서는 다음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구절의 가르침은 내가 직면한 이 현대 상황에서 나의 이해와 생활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나 나의 교회, 나의 교단, 나의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대 상황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제 생각에 이 전유 사업에는 두 가지 열쇠, 즉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의 원칙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현 상황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그 일치점을 적절하게 연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성경적 차용에서 발생하는 경향은 차용이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적 진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하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적용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광범위한 적용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특수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으로서, 회중으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정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도전의 종류를 특정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이 구절이 정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개별 구절을 작업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절을 적용할 때 구절의 적용을 생각해낸다면, 작업 중인 특정 구절을 말해보세요. 그것은 지시될 수 있는 적용일 수도 있고, 수백 가지 다른 것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귀하의 신청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된 이 특정한 구절이 특정한 상황이나 내가 내려야 하는 특정한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묻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구절 자체의 풍부함, 성경 정경에서 그 구절의 독특함을 끌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통찰과 관련하여 다른 어떤 구절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 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특정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학생들이 적용 과정을 진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상황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기독교인의 삶의 상황을 생각하여 변화를 가져올 것을 촉구합니다. . 당신이 말했듯이, 이 상황에서의 나의 삶은 이 구절과 이 구절의 적용으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여기에 없었다면, 이 특정한 구절의 특별한 가르침이 여기 정경에 없었다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삶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유의 특수성 측면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책정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서구 세계에서는 우리 문화가 일종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동,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반드시 행동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의 과정, 생각의 방향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와 가르침에는 직접적인 적용과 간접적인 적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그의 저서 *The Hermeneutical Spiral*에서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설교가 행해질 때마다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적용을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듣고 있거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설교나 가르침에 기초하여 적용하는 일을 하는 한, 그것은 간접적인 적용입니다. 자, 직접적인 적용과 같은 것이 있는데, 설교자나 교사가 실제로 이것의 적용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 당신은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구절을 설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주에 당신과 나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교단의 아주 작은 교회부터 가장 큰 교회까지 다양한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몇 년 전 한 번은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설교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안에 내가 이 설교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즉, 내가 이것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요점은 설교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적용이 어떤 모습일지 말하여 그들이 예배를 떠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일 후에 그들이 실제로 적용했는지 여부는 설교자가 그들에게 적용 방법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적용입니다. 그랜트 오스본(Grant Osborne)은 간접 적용이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개인의 소유권, 듣는 사람, 그 자신의 참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 적용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자나 교사가 설교되는 구절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으로부터 가능한 적용이 무엇인지 지적하거나 제안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방법 자체에 대한 논의에서 야고보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과 해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15, 평가 및 적용입니다.